

# 고행의 끝, 살아있는 부처를 맞다

<1면에서 계속>

10보1배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탐(탐욕), 진(성냄), 치(어리석음)를 걷어내고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불교의 수련법이다. 절은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몸동작으로 가장 경건한 예법이다. 진정한 예법은 마음속에 교만함이 없어야 하는데 젊은 교만과 거만을 떨쳐내는 행동예법이다. 그래서 10보1배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온 몸으로 참회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수행 정신이기 때문에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도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출발할 때 준비한 새 신발이 이틀 새 닳았다. 면장갑도 땅에 닿는 부분은 실밥이 풀리는 강행군으로 무릎과 손목이 상할까 염려됐다. 봉정암에 가까워질수록 순례단의 육체적 고통도 커져 갔다.

11시 10분경에 봉정암을 오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8부 능선 끝까지 고개를 이르렀다. 체력은 완전히 바닥나고 일어서면 어지러워 곧 쓰러질 것 같다. 한 순간 정신을 놓으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다. 험한 바위를 기어가며 10보1배 정진을 이어갔다. 이윽고 봉정암이 눈앞에 나타났다. 관광객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북탁소리도 어렴풋이 들린다.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눈물을 참으며 "감사합니다"란 짧은

말로 마지막 절을 하는데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누구 하나 나오지 않고 봉정암에 오른 서포를 바라보며 웃었다. 10약을 참회하는 것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싶다는 일념으로 10보1배를 시작한 순례단은 9시간 만에 봉정암에 도착했다.

먼저 봉정암에 오른 관광객들로부터 "대단합니다" "성불하세요"라는 응원과 박수갈채를 받으며 꿈에 그리던 사리탑에 올랐다. 불자라면 살아생전 꼭 한번은 올라야한다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 이곳 봉정암 사리탑 앞에 서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하늘로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워졌다.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해발 1224m, 9km의 험준한 10보1배로 고행정진했다는 성취감이 신심이 커졌다.

10년을 하루같이 108배 수행을 해온 권춘선(62·안락동)씨는 환희에 눈물을 쏟아냈다. 감기몸살로 아픈 몸을 이끌고 10보1배를 마친 김수경(63·연지동)씨 역시 "스님께서 다음에 건강할 때 하라고 말리셨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봉정암 사리탑 앞에서 예를 올리고서야 산 아래를 바라봤다. 전망대에서 바



열얼음마다 한 번씩 절을 하며 봉정암을 오른 순례단.

라보는 설악산은 안개로 둘러싸여 신비로운 영산의 모습이였다. 많은 참배객과 등산객으로 늘 붐비는 봉정암에는 맑은 공기와 부처님의 향기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다 수행하기에 좁은 법당에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 불자들이 있었다. 순례단의 거의 대부분은 사리탑에 올라 철야기도를 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6월 12일 마지막 날 새벽, 봉정암은 고요했다. 천년을 넘게 서있는 설악산이 언제나처럼 조용히 아침을 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봉정암 사리탑 앞에서 예를 올리고서야 산 아래를 바라봤다. 전망대에서 바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다. 아침 예불을 올린 뒤 보광 스님이 먼저 나서고 그 뒤를 신도들이 말없이 뒤따랐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백담사 주자장에서 이들을 기다려준 버스기사가 순례단을 반갑게 맞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염려해 에어컨을 미리 틀어줘 사흘간 땀과 눈물 배인 온몸에 한기가 돌 정도였다. 혹독한 자기와의 싸움, 편하고자 하는 본능과의 싸움, 포기하려는 의지와의 싸움, 42명의 순례단은 치열한 고행에서 마지막 승자가 됐다. 순례단의 얼굴에 빙그레 웃음이 떠오른다. 떠나올 때 보였던 불광사 부처님처럼. 박지원 기자

# 어르신 공경의 도량 '환희정' 개원

부산 사하구에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환희정'이 6월 12일 문을 열었다.

'환희정'은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 지현)이 총 사업비 9억여 원을 투입해 부산 사하구 당리동 관음사(주지 지현) 내에 건립했다.

33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한 '환희정'은 환희불교복지대학과 환희요양보호사교육기관, 입소보호사업, 방문요양서비스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시설이다.

1층은 노인 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환희불교복지대학 교육 강당, 2층은 사무실, 3층과 4층은 노인입소보호시설, 5층은 교육자료실 및 휴게실로 꾸며졌다.

특히 3·4층의 입소보호시설은 총 29명 정원으로 고령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돕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목욕, 취사, 청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이 9억여원을 투입해 부산 관음사 내에 노인을 위한 다목적 시설 '환희정'을 개원했다. 사진은 6월 12일 개원식 모습.

하게 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과 청암승가대학 지형 스님, 청암사 상덕 스님, 통도사 율원장 덕훈 스님 및 사하구청장,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늘기쁜마을 대표 지현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돈 없고, 아프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법을 익힐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일이 바로 불법을 전하는 길"이라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송광사 영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환희정이 발전하길 바란다"며 개원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을 기념해 22일 까지 열릴 환희정 1층 강당에서 이사회 지현 스님의 소장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복지법인 설립 후 10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전시회로 선사화와 도자기 등 200여 점이 전시된다. 판매 수익금은 복지 기금으로 쓰여진다. 박지원 기자

# 대승불교조계종 용왕수륙천도대제 봉행

6월 8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서

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홍)은 6월 8일 오전 11시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용왕수륙천도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단오절을 맞이하여 봉행된 용왕수륙천도대제는 스님 및 1000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국경경제 발전 및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위한 감사의 장이었다.

총무원장 지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자금의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국가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어 입만 때 가장 격전지였던 이곳 부산 다대포에서 호국영령천도제를 봉행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부대중이 모두 건강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은 작년에는 200여명의 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중국 구화산에서 합동천도제를 봉행하는 등 매년 천도제를 봉행하여 호국 영령 및 모든 조상들을 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룡 부산시사장

# 제3회 금강은빛문화축제

마산 금강노인복지관(관장 권인철)은 개관 3주년을 맞아 금강은빛문화축제를 개최했다. 6월 14일 오후 1시부터 마산제일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축제에서는 지난 1년간 복지관에서 배운 일본어 발표회를 비롯해 건강 댄스, 스포츠 댄스 등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한마당이 펼쳐졌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핸드마사지, 즉석 기념사진 촬영, 미술작품 전시회, 뽕기 과자 굽기 등이 이어졌다. 박지원 기자

# 밀양불교합창단 15주년 기념 합창발표회

밀양불교합창단(단장 김은희)은 밀양문화체육관에서 창단 15주년을 맞아 기념발표회를 열었다.

6월 17일 저녁 7시30분 밀양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는 불교인과 시민,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공연에서 밀양불교합창단은 밀성정보교과특수교사의 지휘로 '나무

관세음보살' '청산에 올라' '내 마음의 부처' 등 다수의 곡을 발표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뽐내 감명을 받았다. 밀양불교합창단은 밀양불교사암연합회 산하 합창단으로 밀양유일의 불교합창단이기도 하다. 한편 가수 조항조, 음성공양 심진 스님 등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055)355-4518 박지원 기자

# 인터뷰

# 10보1배는 '신성한 기도' 정치적 이용 말아야

11번째 봉정암 10보1배 순례 마친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

"10보1배는 신성한 기도며 단행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순례입니다. 정치 선전용이나 데모의 시위로 변질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번 오르기도 힘든 설악산 봉정암을 10보1배로 벌써 11번째 오른 부산 백양산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사진)을 만났다.

스님은 "절을 할 때는 발을 가지런하게, 몸을 바르게,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인다. 손은 옷을 들어 올리면서 오른 무릎과 왼 무릎을 차

레로 땅에 댄다. 왼 팔꿈치, 오른 팔꿈치 순으로 땅에 대고 두 손바닥을 펴 이마를 거쳐 머리 위로 들고 이마를 땅에 대는 순서로 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오체투지를 하게 되는데 이는 곧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것"이라고 절의 의미를 말했다.

이어 "옛날 부처님을 뵈길 청할 때는 멀리서부터 3보1배를 했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에 갈 때도 일주문에서 한번, 사천왕문과 법당 밖에서도 각

각 3배를 했다"며 "10보1배는 내가 만든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라 예부터 내려오던 예법이 되살렸을 뿐"이라며 10보1배 순례의 뜻을 설명했다.

또 "이런 불가의 절이란 예법이 정치인들의 선전용 수단이나 데모 시위대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며 "신성한 기도로서 절이 가진 본래의 의미로 되돌아가야 할 때"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스님은 내년 1월 1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5대 적멸보궁 10보1배 및 탁발순례에 나설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속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둠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낱말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 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 성장 카이로프락터 양성 | 성장 카이로프락터 개강

포교! 스님의 능력이 경쟁력입니다

#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최면지도자 과정 (2개월) 매주 1회 총 8회

# 대상

- 스님,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맞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 자격

- 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

# 기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 완성

# 장소

- 지하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 입학일시

- 2008년 7월 3일 (선착순 20명) 6월 수시접수함

- 키크기는 영양(31%), 운동(20%), 환경(16%) 등 후천적 요인이 실제 77%를 점하고 있다. 매일의 생활습관으로 거의 80%의 성장 발육 촉진을 시킬 수 있다.
- 키는 골단연골(성장선)이 성장호르몬과 기타 호르몬의 작용으로 골막에서의 영향으로 충분한 혈액을 받아서 성장이 된다. 성장호르몬의 촉진은 20세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장호르몬촉진 제4스텝 명상법과, 척추 스트레칭, 발육촉진의 식단으로 최대의 성장선 발육을 기대할 수 있다.
- 본원은 귀하를 유능한 운동치방사로 탈바꿈 전국학생 80%의 촉만증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와 작은키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키크프로그램으로 여법한 포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 해동체육지도사 2기 부터는 최상의 성장 크리닉을 함께 강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해안 스님

